

편액

슈리성 정전 2층의 편액은 중국 황제로부터 보내온 책을 판자에 옮겨 액자에 넣은 것입니다.

“글자”

중국 청나라 강희제의 친필서를 찾아내어 서도가가 실물 크기로 쓸 예정입니다.

“목공, 낙관”

편액의 구조는 제2 쇼씨 제13대 쇼케이왕 직필 편액 “致和(치와)” 등을 참고로

낙관은 “치와” 및 현내에 잔존하는 편액 및 국외의 황제 직필 편액을 참고로 검토 중입니다.

“조각”

황제 직필 편액 대부분이 9개 머리의 용이 호화롭게 조각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국 및 대만의 사례에서 판명.

용의 부조는 류큐 관계 문화재를 참고로 시험 제작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큐시츠 및 카쇼쿠”

이전 복원에 이어 류큐 왕국 시대의 고문서를 바탕으로 기와 분말을 사용한 옷칠을 재현.

왕가에 전해지는 쇼가 문서에 어서 편액은 황색으로 칠해져 있어 도쿄 국립 박물관에 소장된 강희제 재위 시대를 중심으로 중국 황색칠 칠기를 조사했습니다.

헤이세이 복원 내용을 참고로 해가며 새로 알게 된 9개 머리의 황금 용조각, 글자면의 황색칠 등, 옛 상태를 철저히 검토하여 본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